

四象體質設問紙 問項의 解釋 및 適合性에 대한 研究

신동윤* · 송정모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Abstract

A Study for Interpretation and Fitness of Sasang Constitution Questionnaire

Shin Dong-Yoon*·Song Jeong-Mo

Dept.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o-suk University

Since recent development of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many researches have followed it to verify statistical significancy. However, a few problems about validity of some questionnaires were discovered later on due to the lack of researches about it. Firstly, some questionnaires have different meaning from that of the original Dongyi Suse Bowon. Secondly, belief on statistical significancy sometimes misleads the questions for a certain Sasang constitution to be used for a different Sasang constitution. Thirdly, profound concepts of original Dongyi Suse Bowon are sometimes abandoned or ignored in the excuse of low statistical significancy. Fourthly, it is still difficult to identify Sasang constitution of Taeyangin due to lack of population, sample, and question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minimize the problems related with interpretation and fitness of the questionnaires. The author developed a questionnaire of 48 questions and surveyed with it over 200 patients who visited Jeon-ju Woosuk hospital. This research resulted in a bit of resolution of the problems through statistical comparison between the survey and clinical analysis.

Key Words: Questionnaires, Sasang constitution, validity, significancy, Fitness, Interpretation

I. 緒 論

최근의 사상체질의 진단법은 크게 外形, 心性, 病證의 세 가지 범주에서 연구되고 있다. 外形에 대해서는 體形과 容貌의 실제 계측을 통한 체질별 형상의 정형화 연구 또는 생화학 및 유전자 분석연구가 진행되고 있고^{1~7} 心性에 대해서는 『동의수세보원』의 四象人辨證論을 기반으로 한 體形氣像, 性質材幹, 恒心 및 心慾등을 진단하여 감별하는 설문조사기법이 응용되고 있다. 또한 病證

에 관해서는 원리론적 연구와 체질별 임상증상 유형에 관한 연구, 기존의 증치의학적 병증관을 사상체질의학적 병증개념에 적용시켜 해석하는 연구 등이 있어왔다. 이 가운데 心性에 관한 연구로서 이용되는 사상체질설문지에 대한 연구는 1987년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I)^{8~9}을 시작으로 하여 QSCC I¹⁰, QSCC II¹¹로 이어져 왔으며 각각의 설문지에 대한 타당화 및 표준화 연구^{12~17}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설문지 형태의 연구 방법에도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된다. 설문문항 수가 많아 응답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 검사결과가 한쪽 체질로 치우치거나 태양인의 경우는 감별력이 떨어진다는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설문지문항 중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접수일 2004년 3월 29일; 승인일 2004년 4월 14일
* 교신저자: 신 동 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5번지
Tel: +82-63-220-8415 E-mail: ssmid@hanmail.net

문항으로 재구성하거나 판별식의 함수값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질진단률을 높이고자 김¹⁸ 등과 김¹⁹ 등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학적인 연구 이외에 여전히 몇 가지 보완할 점이 있어 보인다. 첫째는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 대부분이 설문지 초기에 만들어진 문항을 수정없이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문항 자체의 표현 및 해석이 얼마만큼 『동의수세보원』의 취지에 적합한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밝혀진 문항이었다 할지라도 실제 『동의수세보원』에서 언급된 체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없다고 밝혀진 문항에 대해서는 비록 그 문항이 『동의수세보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지라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것이고, 넷째는 여전히 태양인을 감별할 수 있는 문항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상체질설문지에 대한 연구는 설문지의 표준화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설문지의 통계적인 가치가 검증된 것은 사실이나 각각의 문항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사상인의 무엇을 묻고자 하였는지, 그 표현의 방법은 어떠한 것인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해석이 부적합한 문항이 설문지상에 발견되거나, 실제로 태양인 문항이 소음인 문항으로 인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유의성이 없다고 판정된 문항이 왜 그러한 판정을 받았는지, 이에 대한 재활용의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사상체질설문지의 각 문항별 해석 및 적합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이에 저자는 기존의 설문지와 연구 문헌에서 해석 및 적합성에 문제점이 보이는 문항을 분류한 후 『동의수세보원』 및 기타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각각의 문항들을 수정 삭제 신설하여 4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체질 테스트 설문지를 만들었다. 이 후 200명의 환자를 대상으

로 테스트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문항의 해석 및 적합성 여부에 대해 고찰해 본 결과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 하는 바이다.

II. 研究方法

본 연구는 비실험적 연구로 기존의 사상체질분류검사지와 연구논문 중 임상적 또는 문헌적으로 해석이 부정확하거나 적합성이 부족한 문항들의 문제점을 분류하고 이를 수정, 보완한 문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한 설문 문항 평가 작업이다.

1. 문항분류

문항군의 분류는 ‘사상체질분류검사지의 Up-grade 연구 I’²⁰, ‘QSCC II 설문지 문항에서의 체질별 응답 차이 비교 분석 연구’²¹, ‘설문지 문항에서의 체질별 응답차이 비교분석연구’²³ 등의 논문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문항과 없는 문항으로 나누었다.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문항은 다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으면서 『동의수세보원』의 취지와도 부합하지만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한 문항과 통계적으로는 유의성은 있으나 『동의수세보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문항, 즉 통계적 유의성이 실제 체질과 일치하지 않는 문항으로 나누었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문항 중에서 『동의수세보원』의 취지에는 적합한 문항의 경우 다시 하나의 군으로 나누었다. 위와 같이 나누어진 세 개의 군을 각각 Class I, Class II, Class III로 명칭하였다.

2. 문항분석 및 새로운 문항의 개발

1의 문항분석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된 문항의 근거가 되는 원문이나 연구문헌을 찾은 후 각각에 있어 해석의 문제점이나 문항별 적합성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문항을 수정, 통합 또는 새로운 문항을 신설하였다. 문항의 형태는 기존의 사지선다형 문항들은 그대로 사지선다형으로 사용하였으며 ○× 형으로 유의성이 없었던 문항의 경우에는 다시 사지선다형으로 만들어 각 체질별 유의성을 찾아보려 하였다. 또한 사지선다

가 곤란한 문항의 경우에는 둘 중 하나 내지는 셋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항으로 만들어 체질별 응답 경향을 살펴보려 하였다. 이외에 태양인의 문항은 별도로 정리하였다.

3. 조사기간, 대상자의 선정 및 체질 진단

2002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까지 우석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의 외래 및 입원환자 총 200명을 대상으로 體形氣像과 容貌詞氣, 心性, 生理的 病理的 特徵등을 근거하여 사상의학 전문가가 임상적으로 평가하여 체질을 판정한 후 이를 대상으로 기존의 논문에서 유의성이 판명된 문항과 새롭게 만든 문항으로 구성된 총 48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테스트용 설문지’(Questionnaire for Test, 별첨 1)에 응답하게 했다.

4. 통계처리 및 세부 문항분석

설문지 문항의 답안은 Excel (version 10.0)을 이용하여 입력한 후 SPSS (version 1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문항에서 실제 체질과 대상자의 응답을 통해 추정되는 체질과의 연관성은 카이스퀘어검정을 통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고(P<0.05), 실제 체질과 대상자의 응답을 통해 추정되는 체질과의 일치 정도는 일치도 검정(카과값)을 통해서 확인하였다(P<0.05). 기존 설문지 문항연구와의 비교는 설문지에 응답한 대상자가 달랐기 때문에 통계적인 분석은 가능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QSCC II 설문지 문항에서의 체질별 응답 차이 비교 분석 연구’²¹의 각 문항별 결과와 빈도 비교를 하였다.

세부 문항분석을 시행한 문항은 총 15개 문항으로 이는 전체 48개 설문 문항중 性質材幹, 恒心, 性情 등 心性的要素에 관한 문항이며 이중에서도 특히 신실, 통합한 문항을 중심으로 선별하였다.

Ⅲ. 研究結果 및 考察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연구대상자의 체질별 성별 분포

성별에 대한 분포는 그 수가 부족하여 통계적

인 의미가 없는 태양인 1인을 제외한 후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통해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 남자는 92명 여자는 107명이며 소양인은 25.1% 태음인은 52.8% 소음인은 22.1%이다. 성별에 따른 각 군과의 통계적인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다(Table 1).

Table 1. Distribution of Sex Distinction

	Soyangin	Taeumin	Soeumin	Total
Male	22(44.0%)	46(43.8%)	24(54.5%)	92(46.2%)
Female	28(56.0%)	59(56.2%)	20(45.5%)	107(53.8%)
Total	50(25.1%)	105(52.8%)	44(22.1%)	199(100%)

$\chi^2=1.571, df=2, p=0.456$

2) 연구대상자의 체질별 연령 분포

연령에 대한 분포는 태양인 1인을 제외한 후 분산분석(ANOVA test)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p값이 0.452로 세 집단 평균간의 차이는 없으므로 연령에 따른 각 군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Table 2-1, 2-2).

Table 2-1. The Comparison of Age (1)

Age	Soyangin	Taeumin	Soeumin
0-10	0	0	0
11-20	2	3	4
21-30	17	35	14
31-40	13	25	11
41-50	6	19	8
51-60	7	17	5
61-70	4	4	2
71-80	1	1	0
80 more	0	1	0
Total	50	105	44

Table 2-2. The Comparison of Age (2)

	Soyangin	Taeumin	Soeumin	Total
Number of Patient	50	105	44	199
Average of age	38.28	38.86	35.79	38.04
The standard deviation	14.13	13.36	13.65	13.61

F=0.798, df=2, p=0.452

2. 문항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테스트용 설문지와 다른 설문지와의 문항별 비교는 아래와 같다(Table 3).

Table 3. Comparison of other Questionnaire

설문지	기존의 설문지	유형	비고
No.1	QSCCII No.4	4지선다	동일
No.2	QSCCII No.6	4지선다	수정
No.3	QSCCII No.9	4지선다	수정
No.4	QSCCII No.12	4지선다	수정
No.5	QSCCII No.61,101	4지선다	통합
No.6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 No.13	4지선다	통합
No.7	QSCCII No.37,87	4지선다	통합
No.8	QSCCII No.117,118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 No.9	4지선다	통합
No.9	QSCCII No.15	4지선다	수정
No.10	QSCCII No.17,19,21,33	4지선다	통합
No.11	QSCCII No.87	4지선다	수정
No.12	QSCCII No.40,41,42,43,44,45,46,47	4지선다	통합
No.13	QSCCII No.74,75,76,77	4지선다	통합
No.14	QSCCII No.62,63,64,65	4지선다	통합
No.15	QSCCII No.48,49,50,51	4지선다	통합
No.16	QSCCII No.37,87	4지선다	통합
No.17	QSCCII No.1	3지선다	수정
No.18	QSCCII No.2	3지선다	동일
No.19	QSCCII No.3	3지선다	수정
No.20	QSCCII No.5	3지선다	수정
No.21	QSCCII No.11	3지선다	수정
No.22	QSCCII No.8	2지선다	동일
No.23	QSCCII NO.10	2지선다	수정
No.24	QSCCII No.99,100	2지선다	수정
No.25	QSCCII No.99,100	2지선다	수정
No.26	QSCCII No.73	2지선다	신설
No.27	QSCCII No.83	T-P	수정
No.28	QSCCII No.23	T-P	수정
No.29	QSCC I No.9	T-P	수정
No.30	QSCCII No.34	T-P	수정
No.31	QSCCII No.18	T-P	수정
No.32	QSCCII No.20	T-P	수정
No.33	QSCCII No.30	T-P	동일
No.34	QSCCII No.81	T-P	동일
No.35	QSCCII No.73	T-P	수정
No.36	QSCCII No.39	T-P	수정
No.37	QSCCII No.88	T-P	수정
No.38	QSCCII No.58	T-P	수정
No.39	QSCC I No.19	T-P	동일

No.40	QSCC I No.106	T-P	수정
No.41	QSCC I No.106	T-P	수정
No.42	QSCCII No.57	T-P	수정
No.43	QSCCII No.63	T-P	동일
No.44	없음	T-P	신설
No.45	QSCCII No.68	T-P	동일
No.46	QSCCII No.78	T-P	수정
No.47	없음	T-P	신설
No.48	QSCCII No.12	T-P	수정

동일 : 9개, 수정 : 27개, 통합 : 10개, 신설 : 3개

(Table 3의 내용 중 ‘동일’은 기존의 설문지 문항과 비교하여 전혀 변화 없는 동일한 문항이고 ‘수정’은 표현이나 내용에 있어 수정이 가해진 문항이다. ‘통합’은 기존의 설문지 중 2개 이상의 문항을 하나의 문항으로 만든 것이며 ‘신설’은 표현이나 내용면에서 기존의 설문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문항을 말한다. 단 음영으로 강조된 번호의 문항은 임상적이거나 문헌적으로 기존의 설문지와 비교하여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논문에서 언급된 문항이다. T-P는 true-false형 문항을 말한다.)

3. 문항군의 분류 및 고찰

문항군의 분류는 아래의 세 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 ① **Class I**: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고 『동의수세보원』의 취지와도 부합하지만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한 문항
 - QSCCII No. 1, 3, 5, 6, 9, 10, 12, 15, 17, 18, 19, 20, 21, 23, 33, 34, 39, 73 등
 - ② **Class II**: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으나 실제 체질과 일치하지 않은 문항
 - QSCCII No. 18, 37, 48, 49, 50, 51, 62, 63, 64, 65, 87 등
 - ③ **Class III**: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으나 『동의수세보원』의 취지에는 부합하는 문항
 - QSCCII No. 21, 40, 41, 42, 43, 44, 45, 46, 47, 74, 75, 76, 77, 99, 100, 117, 118 등
- 분류된 각 군에서 각각의 문항별 해석의 문제점이나 문항의 적합성을 고찰해 본 후 이를 수정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문항으로 만들고 이를 새롭게 통계 처리하여 기존의 통계결과와 비교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다시 추가하였다.

1) Class I

Class I 은 김²⁰ 등과 박^{21,23} 등의 연구를 통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이 밝혀진 기존의 설문 문항 중에서 문항의 내용과 표현이 비교적 『동의수세보원』의 취지를 잘 반영하였지만 몇 가지 점에서 수정 보완이 필요한 문항 군이다. 각각의 문항에 대한 적합성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새롭게 문항을 만들어 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QSCC II No.12

12. 당신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거침없고 과단성이 있다.
 ② 활동적이고 용감하다.
 ③ 용모가 의젓하고 격식을 차리는 편이다.
 ④ 태도가 온순하고 꾸밈이 없다.

테스트용 설문지 No.4 (태도)

4. 당신의 태도는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거침없고 과단성이 있지만 함부로 하는 경향도 있다.
 ② 민첩하고 용감하지만 경솔한 경향도 있다.
 ③ 의젓하고 무게 있지만 무뚝뚝한 경향도 있다.
 ④ 온순하고 꾸밈이 없지만 게으른 경향도 있다.

QSCC II의 12번 문항은 사상체질인의 容貌詞氣를 묻는 문항이다. 그러나 12-③에서 容貌가 의젓하다고 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 태도 즉 詞氣에 해당하는 문항이다. 따라서 이를 전체적으로 사상인의 태도로 묻는 문항으로 수정 보완해보고 이를 테스트용 설문지 4번 문항으로 표현해보았다.

일단 QSCC II의 12-③의 문항 중 容貌라는 단어는 태도를 묻는 문항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였다. 대신 태음인의 修整正大¹⁾의 의미를 ‘엄숙하다’로 해석해보고 이를 부정적인 의미로 바꾸어 표현하면 ‘무뚝뚝하다’로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기존의 12-③번 문항에 더하여 ‘의젓하고 무게 있지만 무뚝뚝한 경향이 있다’ 라고 표현

해보았다. 문항 내에 장점과 단점을 각각 부각시키는 형태로 문항이 만들어짐에 따라 다른 체질의 문항에도 단점을 첨가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태양인의 경우 기존의 QSCC II 12-①번 문항에 태양인의 ‘伐心’ 또는 ‘棄禮而放縱²⁾’ 하는 부정적인 면을 첨가하였다. 태양인의 伐心은 擴充論에서 ‘太陽之臍 宜戒伐心 太陽之臍 若無伐心 絕世之行檢 必在此也’라 하여 伐心이 없다면 行檢이 있을 것이라 하였고 行檢은 절제와 규제의 과정을 통해 다듬는 것을 의미²⁶⁾하므로 이를 태양인의 단점으로 해석하자면 함부로 한다는 뜻으로 ‘棄禮而放縱’의 의미와 상통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4-① 태양인의 문항에는 기존의 12-① 문항에 ‘함부로 하다’를 첨가해보았다.

QSCC II의 12-②번 즉 소양인 詞氣의 경우 ‘好勇³⁾’을 ‘활동적이고 용감하다’라고 표현하였으나 ‘활동적이다’라는 용어는 태양인이나 태음인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용어이므로 대신 ‘민첩하다’라는 용어로 대신하였고 ‘胸實足輕’을 ‘경솔하다’ 라고 부정적으로 해석해보아 문항을 새로이 만들었다.

QSCC II 12-④번 소음인 詞氣의 경우는 테스트용 설문지의 4-④번에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다만 부정적인 요소로 ‘게으르다’를 첨가하였는데 이는 ‘偷逸之心⁴⁾’의 안일함을 소음인의 태도에 맞게 변형시켜 본 것이다.

테스트용 설문지 4번 문항을 카이스퀘어검정하였을 경우 P값은 0.05이하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문항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일치도검정의 결과 즉 카과값은 0.182로 체질과의 일치정도는 판명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낮은 일치도 때문에 대부분의 사상체질설문지에서는 이를 점수화하여 합산하거나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체질을 판별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새로운 설문지의 체질판정도를 평가하는 목적이 아니며 문

2) 2-2 棄禮而放縱者 名曰 鄙人
 3) 18-7 少陽人 體形 上實下虛 胸實足輕 剽銳好勇而 人數亦多 四象人中 最爲易辨
 4) 3-10 棄義而偷逸者 名曰 懦人, 少陰之人 雖好爲雌 亦或宜雄 若全好爲雌則 偷逸之心 必過也

1) 18-9 太陰人 容貌詞氣 起居有儀而修整正大...

항별 해석과 적합성을 보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았다. 대신 기존의 설문지 문항분석 연구와 빈도 비교를 해보기로 하였다. 기존의 설문지 문항분석연구와의 빈도 비교는 설문지에 응답한 대상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통계적인 의의는 갖기 어려우나 문항별 응답률의 이동을 살펴보는 데는 참고할만하다 생각되어 시도하였다. 기존의 설문지문항분석에 대한 연구는 박²¹ 등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였다(Table 4, 5).

테스트용 설문지 4-②번 문항 중에 ‘경솔하다’는 어휘가 지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여 소양인의 빈도가 덜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태음인 문항에 많은 응답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소음인의 경우는 변경전과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태음인의 경우는 새로운 유의성을 밝혀내기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테스트용 설문지 4번 문항은 ‘胸實足輕’의 의미를 ‘경솔하다’ 이외의 표현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으며 태음인의 ‘修整正大’ 경우 또한 소음인과의 구별을 명확히 해줄 수 있는 다른 표현으로 대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Table 4. Response to the QSCC II No.1221)

QSCC II	Taeumin(%)	Soeumin(%)	Soyangin(%)	Total
12-①	9 11.7	1 1.4	10 18.9	20
12-②	10 13.0	1 1.4	21 39.6	32
12-③	30 39.0	22 31.4	10 18.9	62
12-④	27 35.1	45 64.3	9 17.0	81
No response	1 1.3	1 1.4	3 5.7	5

Table 5. Response to the New Questionnaire No.4

No.4	Taeumin(%)	Soeumin(%)	Soyangin(%)	Total
4-①	20 19.0	2 4.5	22 44.0	44
4-②	15 14.3	3 6.8	12 24.0	30
4-③	29 27.6	11 25.0	7 14.0	47
4-④	34 32.4	26 59.1	8 16.0	68
No response	7 6.7	2 4.5	1 2.0	10

(2) QSCC II No. 61, 101

61. 남성적인 면이 많고 여성적인 면이 적다.
101. 여성적인 면이 많고 남성적인 면이 적다.

테스트용 설문지 No.5 (용모)

5. 당신의 용모에서 풍기는 인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강하고 남성적이다.
 ② 날카롭고 예리하다.
 ③ 두텁고 선이 굵다.
 ④ 부드럽고 여성적이다.

QSCC II 61번과 101번은 실체는 태양인과 소음인의 情氣에 해당하는 문항이나 이를 사상인의 풍기는 인상 즉 容貌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발전시켜 본 문항이다. 단 테스트용 설문지 5-① 태양인 문항의 ‘강하다’라는 표현은 소음인의 容貌詞氣인 ‘體任自然而簡易小巧⁵⁾’에서 단 아하다는 의미나 性氣인 ‘坦坦然⁶⁾’이 모나지 않았다는 의미나 ‘撫循’의 잘 달랜다는 의미 등에서 표현되는 ‘부드럽다’등에 상대하여 반대로 표현한 것이다. 소양인의 容貌에 해당하는 5-②번 문항은 ‘剽銳⁷⁾’로 원문에서 인용하였다. 태음인에 해당하는 5-③번 문항은 『동의수세보원』의 원문보다 김²⁵ 등의 연구에서 태음인의 皮膚, 下顎, 鼻脣 등이 두텁고 굵다는 표현이 더욱 태음인의 인상을 잘 표현한 듯하여 이를 인용하였다.

테스트용 설문지 5번 문항을 카이스퀘어검정하였을 경우 P값은 0.05이하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문항으로 판명되었다. 박²¹ 등의 연구결과와 비교해보면 (Table 6, 7)과 같다. 容貌에서 풍기는 인상은 소음인의 경우 역시 좋은 결과를 얻었고 소양인에게서도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태음인에게서는 그 응답의 분포가 다양하여 다른 표현으로 변경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5) 18-9 少陰人 容貌詞氣 體任自然而簡易小巧
 6) 3-11 少陰人 雖至愚 其性 坦坦然 猶撫循也 雖至不肖人之能否 亦知之也
 7) 18-7 少陽人 體形 上實下虛 胸實足輕 剽銳好勇而人數亦多 四象人中 最爲易辨

Table 6. Response to the QSCCII No.61, 101²¹

QSCCII	Taeumin(%)	Soeumin(%)	Soyangin(%)	Total
61"O"	21:27.3	7:10.0	12:18.9	16
"X"	56:72.7	63:90.0	41:77.4	160
번호	Taeumin(%)	Soeumin(%)	Soyangin(%)	Total
101"O"	22:28.6	41:58.6	9:17.0	72
"X"	55:71.4	29:41.4	44:83.0	128

Table 7. Response to the New Questionnaire No.5

No.5	Taeumin(%)	Soeumin(%)	Soyangin(%)	Total
5-①	14:13.3	2:4.5	12:24.0	28
5-②	35:33.3	12:27.3	21:42.0	68
5-③	20:19.0	2:4.5	8:16.0	30
5-④	34:32.4	27:61.4	8:16.0	69
No response	2:1.9	1:2.3	1:2.0	4

테스트용 설문지 No.6 (목소리 음향특성)

6. 당신의 목소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크고 우렁차다
- ② 맑고 낭랑하다 밝다 카랑카랑하다
- ③ 탁하지만 굵고 힘이 있다.
- ④ 작고 힘이 없다. 부드럽다. 차분하다.

(3)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 No.13

13. 당신의 음성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음성이 탁하다
- ② 조용한 편이다.
- ③ 카랑카랑하다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에서 13번 문항은 목소리나 음향의 특성을 묻는 문항이다. 이미 소양인의 목소리 음향특성이 유의성이 높다고 밝혀진 문항이지만 이를 수정 보완하여 테스트용 설문지 6번 문항으로 표현해보았다.

신²⁴ 등의 연구에 따르면 ‘太陰人 容貌詞氣 起居有儀而修整正大’나 ‘少陰人 容貌詞氣 體任自然而簡易小巧’에서 말하는 기운을 유추하여 해석할 수 있으며 각 체질의 恒心⁸⁾에서 나타나는 심

리상태로 인해 발음속도와 같은 음성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소음인은 음성이 낮고 완만하고 조용한 편이고 소양인은 음성이 높고 맑으며 급하고 태음인은 음성이 낮고 무거우며 완만하고 굵고 성량이 풍부하다 하였다. 테스트용 설문지 6-①번 문항의 경우 태양인에 해당하는 항목이나, 신²⁴ 등의 연구에서는 태양인의 목소리 음향특성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 없으므로 태양인이 말을 잘하여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⁹⁾에 기인하여 ‘웅변력이 있다’ 곧 웅변할 때의 크고 우렁찬 목소리를 유추하여 문항으로 만들어보았다. 나머지 6-②, 6-③, 6-④번 문항은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 13번 문항에 신²⁴ 등의 연구결과를 보완하였다.

테스트용 설문지 13번 문항은 카이스퀘어검정에 따른 P값은 0.05이하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문항으로 판명되었으며 카파값은 0.219로 실제 체질과의 일치정도도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신²⁴ 등의 연구대로 소양인과 소음인에게서는 비교적 높은 유의성을 보였으나 태음인의 경우에는 분포가 비슷하게 흩어져 있어 큰 유의성을 갖지 못했는데 이는 신²⁴ 등의 연구는 피조사자의 주관적인 응답과 동시에 객관적인 음향기계를 통하여 목소리의 음향특성을 연구하였으나 테스트용 설문지의 경우 피조사자의 주관적인 응답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Table 8, 9).

Table 8. Response to the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 No.13

No.6	Taeumin(%)	Soeumin(%)	Soyangin(%)	Total
13-①	25:32.5	5:7.1	9:17.0	39
13-②	30:39.0	49:70.0	19:35.8	73
13-③	16:20.8	11:15.7	6:34.0	45
No response	3:7.8	5:7.1	2:23.2	18

氣 卽活也 太陽人 恒有急迫之心 急迫之心寧靜則 肝血 卽和也

9) 3-11 太陽人 雖至愚 其性 便便然 猶延納也 雖至不肖人之善惡 亦知之也

8) 18-12 少陽人 恒有懼心 懼心寧靜則居之安 資之深而造於道也 懼心益多則 放心桎梏而 物化之也 若 懼心至於恐心則 大病作而 健忘也 健忘者 少陽人病之險證也
18-13 少陰人 恒有不安定之心 不安定之心寧靜則 脾

Table 9. Response to the New Questionnaire No.6

No.6	Taeumin(%)	Soeumin(%)	Soyangin(%)	Total
6-①	17 16.2	4 9.1	14 28.0	35
6-②	39 37.1	11 25.0	23 46.0	73
6-③	24 22.9	4 9.1	6 12.0	34
6-④	22 21.0	24 54.5	5 10.0	51
No response	3 2.9	1 2.3	2 4.0	6

(4) QSCC II No. 15

15. 다음중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일처리, 또는 생활습관)

- ① 무슨 일이든지 물러서지 않고 밀고 나간다.
- ② 일을 벌려 놓기만 하지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한다.
- ③ 움직이기보다는 조용히 혼자 일을 추진하는 편이다.
- ④ 한곳에 있으려고만 하지 나다니려하지 않는 편이다.

테스트용 설문지 No.9 (일처리 생활습관)

9. 일처리에 있어서 당신은 다음 중 어느 쪽입니까?

- ①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물러서지 않고 밀어붙인다.
- ② 이것저것 일을 만들기는 잘 하지만 마무리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
- ③ 매사에 신중하게 생각한 뒤에 결정하며 다른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다.
- ④ 혼자 하는 것이 편하고 남에게 잘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QSCC II 15번 문항은 사상인의 性氣에 대한 측면을 일처리 또는 생활습관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에 대해 몇 가지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어 테스트용 설문지 9번 문항으로 변경해보았다. QSCC II의 15-①번 문항은 태양인의 性氣¹⁰⁾를 표현한 것인데, 문항 중에 '무슨 일이든지'라는 표현은 태양인의 독선적인 면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만 응답회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수정하여 테스트용 설문지 9-①에서는 '남들이 뭐라 하든'으로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QSCC II 15-③번 항목은 태음인의 性氣¹¹⁾를 표현한 것으로

10) 3-7 太陽之性氣 恒欲進而 不欲退
 11) 3-7 太陰之性氣 恒欲靜而 不欲動

로 '不欲動'을 일처리에 있어서 재해석해보자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라기 보다는 '마음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다' 즉 '남을 쉽게 믿지 않는다' 또는 '신중하다'라는 의미로 표현할 수 있어 새롭게 수정해보았다. QSCC II 15-④번 문항은 소음인의 性氣를 표현한 것으로 이 또한 일처리라는 경우에서 살펴본다면 '恒欲處而 不欲出'을 한 곳에 거처한다는 의미보다는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재해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 이를 새로운 문항으로 표현해보았다.

테스트용 설문지 9번 문항은 카이스케어검정에 따른 P값은 0.05이하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문항으로 판명되었다. 박²¹⁾ 등의 연구결과와 비교해보면 Table 10, 11과 같다.

Table 10. Response to the QSCC II No.15²¹⁾

QSCC II	Taeumin(%)	Soeumin(%)	Soyangin(%)	Total
15-①	8 10.4	3 4.3	7 13.2	18
15-②	16 20.8	12 17.1	32 60.4	60
15-③	35 45.5	40 57.1	8 15.1	83
15-④	14 18.2	14 20.0	4 7.5	32
No response	4 5.2	1 1.4	2 3.8	7

Table 11. Response to the New Questionnaire No.9

No.9	Taeumin(%)	Soeumin(%)	Soyangin(%)	Total
9-①	22 21.0	3 6.8	18 36.0	43
9-②	10 9.5	3 6.8	5 10.0	18
9-③	25 23.8	13 29.5	10 20.0	48
9-④	43 41.0	25 56.8	16 32.0	84
No response	5 4.8	0 0	1 2.0	6

소음인 문항의 경우 수정 후에 기존의 QSCC II 논문에서 20.0%에 해당하는 응답률이 56.8%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태음인의 문항에 있어서는 오히려 응답률이 하락되었는데 이는 '다른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다'는 용어의 선택이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소양인의 경우는 더 많은 응답율의 하락이 있었는데, 소양인 문항의 해석 상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보면 소양인 응답자가 다른 체질의 문항에 Desirable Response¹²⁾를

12) '바람직한 쪽으로 대답하는 것' 조사방법론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개념²⁵⁾

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테스트용 설문지 9번 문항은 9-②번 9-③의 문항의 부정적인 내용을 좀 더 완곡한 표현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QSCCII No. 17, 19, 21, 33

- 17. 무슨 일이든 시원스럽게 처리한다.
- 19. 활발하고 대가 센 편이다.
- 21. 시작한 일은 끝까지 성취하는 편이다.
- 33. 단정하고 신중하다.

테스트용 설문지 No.10 (성질)

- 10. 당신의 기질(스타일)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① 사소한 것은 신경 쓰지 않으며 과감하다.
 ② 대가 세며 어지간해선 기죽지 않는다.
 ③ 마음먹은 일은 이를 때까지 집요하게 한다.
 ④ 안전하고 단정하며 침착하다.

QSCCII No. 17, 19, 21, 33은 사상인의 性質에 대한 문항들로 이에 대해 약간의 수정을 하고 하나의 문항으로 통합하여 테스트용 설문지 10번 문항으로 표현해보았다.

테스트용 설문지 10-①번 문항은 QSCCII의 17번 문항의 ‘무슨 일이든’이라는 표현이 응답회피를 가져올 수 있는 표현이므로 이를 수정한 것으로 ‘疏通’의 의미를 ‘시원스럽게 처리하다’라는 말 대신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로 표현을 달리해보았는데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交遇에 능하고 黨與에 자질이 없는 태양인의 기질¹³⁾에 적합하다 하겠다. 한편 소양인의 ‘剛武’와 태음인의 ‘成就’는 테스트용 설문지 10-②, 10-③번 문항으로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10-④번 소음인 문항의 경우 QSCCII의 33번 문항에서 ‘신중하다’라는 표현은 태음인의 앞서 ‘恒欲靜而 不欲動’에서 밝혔듯 태음인에게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端重’의 ‘端’은 ‘단정하다’로 ‘重’은 ‘침착하다’로 재해석 하여 문항을 구성해 보았다.

테스트용 설문지 10번 문항은 카이스퀘어검정에 따른 P값은 0.05이하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문항으로 판명되었으나 ‘少陰人 性質 長於端重而¹⁴⁾’에 해당하는 소음인의 경우에만 응답과 체질이 일치하였고 나머지 문항들은 각각 2지선다로 나열했을 때에 비하여 더 나아진 것을 살펴볼 수 없었다. 위의 문항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2지선다를 통해 다른 체질을 배제하는 형태로 활용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12. Response to the QSCCII No.17, 19, 33²¹

QSCCII	Taeumin(%)	Soeumin(%)	Soyangin(%)	Total
17-○	19 24.7	3 4.3	21 39.6	43
17-×	58 75.3	67 95.7	32 60.4	157
19-○	16 20.8	3 4.3	23 43.4	42
19-×	61 79.2	67 95.7	30 56.6	158
33-○	42 54.5	52 74.3	20 37.7	114
33-×	35 45.5	18 25.7	33 62.3	86

* QSCCII No.21 문항은 세 체질 모두 X라 응답하여 유의성이 없어 결과를 생략함

Table 13. Response to the New Questionnaire No.10

No.10	Taeumin(%)	Soeumin(%)	Soyangin(%)	Total
10-①	14 13.3	2 4.5	12 24.0	28
10-②	14 13.3	4 9.1	15 30.0	33
10-③	37 35.2	9 20.5	17 34.0	63
10-④	32 30.5	27 61.4	4 8.0	63
No response	8 7.6	2 4.5	2 4.0	12

(6) QSCCII No.73

- 73.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되기까지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테스트용 설문지 No.26 (의사 표현)

- 26-1 생각보다 말이나 행동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많다.
- 26-2 생각하는 습관 때문에 말(행동)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QSCCII의 73번 문항은 소음인의 의사 표현에 대한 문항으로 이를 두 개의 문항으로 새롭게 구

13) 3-3 太陽之脾 能勇統於交遇而 太陽之肝 不能雅立於黨與

14) 18-3 少陰人 性質 長於端重而 材幹 能於黨與

성해 본 것이다. ‘少陰之性氣 恒欲處而 不欲出’에서 ‘不欲出’의 의미를 의사 표현에 있어서 재해석하면 소음인은 소극적인 성향으로 인해 ‘말을 잘 하지 못하거나 기회를 놓친다’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소양인이나 태양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항목은 26-1번 문항으로 유추하여 만들어 보았다. 테스트용 설문지 26번 문항은 비록 소음인의 性氣에서 문항을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상인을 태양, 소양인 군과 태음, 소음인 군의 2개의 군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게 되었다.

테스트용 설문지 26번 문항에 대한 카이스퀘어 검정 결과는 P값이 0.05이하로 통계적 유의성을 갖았으며 응답결과도 소음인-태음인군과 소양인군으로 차별되어 반응이 나타났다. 덧붙이자면 소음인과 태음인 각각에도 의사표현의 방식에는 차이점이 있을 것이므로 여기에 대한 연구가 계속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Table 14. Response to the QSCC II No.73

No.26	Taeumin(%)	Soeumin(%)	Soyangin(%)	Total
73-○	35 45.5	39 55.7	9 17.0	83
73-×	42 54.5	31 44.3	44 83.0	117

Table 15. Response to the New Questionnaire No.26

No.26	Taeumin(%)	Soeumin(%)	Soyangin(%)	Total
26-①	34 32.4	15 34.1	34 68.0	83
26-②	61 58.1	26 59.1	12 24.0	99
No response	10 9.5	3 6.8	4 8.0	17

2) Class II

Class II는 김²⁰등과 박^{21,23}등의 연구를 통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이 밝혀진 기존의 설문 문항 중에서 문항의 내용과 표현이 실제 『동의수세보원』에서 가리키는 체질 군과 다른 결과가 나온 문항 군이다. 각각의 문항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분석해보고 문항별 해석 및 적합성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새롭게 문항을 만들어 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QSCC II No. 37, 87

- 37. 남을 잘 가르치고, 설득력이 있는 편이다.
- 87. 사람을 설득하는 일은 대개 나에게 돌아온다.

테스트용 설문지 No.7 (性氣, 태도)

- 7. 대화할 때 당신의 태도는 다음 중 어느 쪽입니까?
 - ①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상대를 설득시키려 한다.
 - ② 말을 많이 하며 빨리하지만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
 - ③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장황해지는 경우도 있다.
 - ④ 말 수가 적고 주로 남의 말을 듣는 편이며, 필요한 말만 간결하게 한다.

QSCC II의 문항 37번과 87번 문항은 태음인의 性氣인 ‘教誘’를 설문으로 만든 것이나 실제로는 소음인에게 유의성이 나타난 문항으로 적합성에 어긋나는 문항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본다면 擴充論에 따르면 ‘太陰人 雖至愚 其性 卓卓然 猶教誘也 雖至不肖 人之勤惰 亦知之也’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卓卓然’은 ‘사람위에 우뚝 솟는 듯하다.’라는 뜻이다. 한편 ‘教誘’는 ‘남을 가르치며 유도해 내는 듯하다.’는 뜻인데 이는 곧 ‘태음인은 풍채가 있고 듬직하게 보이며 그 모습만으로도 위엄과 가르침이 있어 보인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실제 ‘남을 잘 설득하고 가르친다’는 점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듯하다. 오히려 이러한 면은 소음인의 ‘撫循’한 본성에 해당하므로 설문 결과상 소음인에게 유의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위의 태음인을 포함하여 각 사상인의 말을 하는 태도에 대한 면을 수정하여 문항으로 만들어보았다.

테스트용 설문지 7-①번 문항은 태양인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太陽人 雖至愚 其性 便便然 猶延納也 雖至不肖 人之善惡 亦知之也’에서 ‘便’의 의미는 말을 잘한다는 뜻이고 猶延納의 의미는 사람을 잘 끌어드린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괄호안의 ‘논리적으로’는 소양인의 언변이 두서없는 것과 차별을 두기위해 포함시켜놓은 것이다.

7-②번 문항은 소양인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말

하는 태도를 원문에서 찾기 어려워 최근의 연구는 문을 인용하였다. 신²⁴등의 연구에 따르면 소양인의 말은 음성이 높고 급하고 가볍고 말을 함부로 한다고 하였다. 7-③과 7-④번 문항은 각각 태음인과 소음인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역시 신²⁴등의 연구에 따르면 태음인 소음인 모두 ‘조용한 편이지만 말을 한번 한때는 많이 하는 편’에 많은 응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태음인과 소음인을 구별하기 위하여 태음인의 경우에는 心慾중 貪心을 강조하기 위하여 고집스럽게 말을 하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고 소음인의 경우에는 懶心으로 인하여 말을 길게 하지 못함을 표현해 보았다.

테스트용 설문지 7번 문항은 카이스퀘어검정에 따른 P값은 0.05이하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문항으로 판명되었다. 분석결과 소음인의 유의성이 높았으며 소양인의 경우 반대로 태양인의 항목에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리고 태음인의 경우는 분포가 다양하였다. 소양인의 경우 ‘두서없다’는 용어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여 Desirable Response을 보이면서 태양인의 문항으로 그 응답이 이동한 것으로 보여진다. 태음인의 경우 대화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새로운 문항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16. Response to the QSCCII No.37,87²¹

QSCCII	Taeumin(%)		Soeumin(%)		Soyangin(%)		Total
37"O"	31	40.3	22	31.4	32	60.4	85
"X"	46	59.7	48	68.6	18	34.0	115
번호	Taeumin(%)		Soeumin(%)		Soyangin(%)		Total
87"O"	22	28.6	4	5.7	13	24.5	39
"X"	55	71.4	66	94.3	40	75.5	161

Table 17. Response to the New Questionnaire No.7

No.7	Taeumin(%)		Soeumin(%)		Soyangin(%)		Total
7-①	26	24.8	3	6.8	19	38.0	48
7-②	14	13.3	3	6.8	11	22.0	28
7-③	24	22.9	9	20.5	12	24.0	45
7-④	38	36.2	29	65.9	7	14.0	74
No response	3	2.9	0	0	1	2.0	4

테스트용 설문지 No.16 (性氣 II, 대인관계)

16. 대인관계에서 당신은 다음 중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① 말솜씨가 좋아 사람들을 감복시키는 경우가 많다.
② 매사에 절도가 있고 분명하며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대충 넘기지 않는다.
③ 엄숙하고 무게 있게 행동하므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④ 성질이 모나지 않고 유순하며 타인의 일에 간섭하기 싫어한다.

테스트용 설문지 문항 16번은 앞서 밝힌 7번 문항과 뒤에 언급될 12번 문항과 같은 性氣의 원문에서 응용된 것이다. 단 16번 문항은 7번 문항과는 달리 긍정적인 방법으로 질문을 하였고 7번 문항이 ‘말하는 태도’에 한정된 것과는 다르게 원문의 뜻을 그대로 표현하여 ‘대인관계’에 대한 문항으로 새롭게 만들어 보았다.

16-①번 문항은 태양인에 해당하는 항목이며 이는 테스트용 설문지 7-①번과 같은 표현이라 할 수 있다. 16-②번 문항은 소양인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恢恢然¹⁵⁾이란 소양인의 가슴이 넓은 모양으로 ‘시원스럽게 터져있다’는 모습이며 ‘式度’는 ‘법도가 있다’, ‘엄격하다’로 해석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매사에 절도가 있고 분명하며 잘못된 일을 대충 넘기지 않는다’로 표현해보았다.

16-③번 문항은 태음인에 해당하는 항목이며 ‘卓卓然’과 ‘教誘’는 앞서 7-③에서 밝힌 것과 같이 ‘풍채가 있고 듩직하게 보이며 그 모습만으로도 가르침이 있어 보인다’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달리 표현하면 이러한 태음인의 성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엄숙하고 무게 있게 행동하므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해보았다.

16-④번 문항은 소음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坦坦然’이란 ‘평탄하다’, ‘너그럽다’, ‘모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면에서 소음인은 ‘모나지 않고 유순하며 타인의 일에 간섭하기 싫어한다’라고 표현해보았다.

15) 3-11 少陽人 雖至愚 其性 恢恢然 猶式度也 雖至不肖人之知愚 亦知之也

테스트용 설문지 5번 문항은 카이스퀘어검정결과 P값이 0.05이하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문항으로 판명되었다.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는 Table 18과 같다. 분석 결과 소양인과 소음인의 性氣는 비교적 잘 대변하고 있으나 태음인의 경우 소음인의 문항으로 응답이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卓卓然’의 해석이 태음인의 性氣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태음인의 경우 다른 형태의 문항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Table 18. Response to the New Questionnaire No.16

No.16	Taeumin(%)	Soeumin(%)	Soyangin(%)	Total
16-①	14 13.3	1 2.3	5 10.0	20
16-②	17 16.2	5 11.4	28 56.0	50
16-③	21 20.0	10 22.7	4 8.0	35
16-④	51 48.6	26 59.1	12 24.0	89
No response	2 1.9	2 4.5	1 2.0	5

(2) QSCC II No.87

87. 사람을 설득 하는 일은 대개 나에게 돌아온다.

테스트용 설문지 No.11 (材幹, 재능)

11. 당신은 다음의 어느 쪽에 재능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처음 만난 사람도 쉽게 설득할 수 있다.
 ② 일의 핵심을 쉽게 파악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③ 매사에 안정적이고 중심을 잘 잡아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④ 익숙한 자리에선 상대와 깊은 대화를 이끄는 능력이 있다.

QSCC II의 문항 87번은 소음인에게 유의성 있게 나온 문항이지만 실제로는 태양인의 材幹인 ‘能於交遇¹⁶⁾’ 또는 性氣인 ‘便便然 猶延納也’를 묻는 문항으로 응답결과가 『동의수세보원』의 취지에 어긋난 문항이다. 이 문항은 앞서 테스트용 설문지 No.7 (性氣, 태도)에서 밝힌 바 있으나 이를 각 체질의 재능에 대한 표현으로 변경하여 새롭

게 해석해보았다.

테스트용 설문지 11-①번 문항은 태양인의 材幹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能於交遇’는 곧 ‘太陽人 謹於交遇故 恒有交遇生疎人慮患之怒心...’ 이라 하여 처음 만난 사람도 쉽게 설득할 수 있다고 표현하였고 여기에 태양인의 交遇는 소음인의 黨與와 달리 목적성이 강한 만남을 뜻하므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라는 용어를 더하였다. 테스트용 설문지의 11-②번 문항은 소양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能於事務¹⁷⁾’에서 소양인은 일처리가 뛰어난 것으로 표현해 보았다. 11-③번 문항은 태음인의 材幹인 能於居處¹⁸⁾에 해당하며 이는 앞서 밝힌 태음인 性氣¹⁹⁾인 ‘恒欲靜而不欲動’의 ‘신중하다’라는 의미와 태음인의 情氣인 ‘恒欲內守而 不欲外勝’의 ‘안정적이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 곧 태음인의 材幹을 ‘매사에 안정적이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로 표현해보았다. 테스트용 설문지 11-④번 항목은 소음인의 材幹인 能於黨與에 해당하며 黨與란 태양인의 交遇에 비해 작은 인간관계를 뜻하고 이에 材幹이 있음은 곧 소음인의 性氣인 ‘坦坦然 猶撫循也²⁰⁾’와 통한다 할 수 있다. 또한 ‘恒有黨與親熟人擇交之喜心²¹⁾...’이라 하여 소음인은 항상 친숙한 모임에서는 사교에 능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소음인의 材幹을 ‘익숙한 자리에선 상대와 깊은 대화를 이끄는 능력이 있다’로 표현하였다(Table 19, 20).

테스트용 설문지 11번 문항은 카이스퀘어검정결과 P값이 0.2로 유의성이 없는 문항으로 판정되었고 카파값 또한 0.047로 각 체질과 문항과의 상관관계도 거의 없어 설문문항으로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材幹에 대해서는 『동의수세보원』을 다른 방법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

17) 18-3 少陽人 性質 長於剛武而 材幹 能於事務
 18) 18-3 太陰人 性質 長於成就而 材幹 能於居處
 19) 3-7 太陰之性氣 恒欲靜而 不欲動
 20) 撫循: 어루만질(무) 말할(순)
 21) 3-13 少陰人 謹於黨與故 恒有黨與親熟人擇交之喜心 此心 出於秉彜之敬心 莫非至善而 輕於交遇故 每爲 生疎交遇人所誣而 偏喜傷臟 以其慮患之心 不周故也

16) 18-3 太陽人 性質 長於疏通而 材幹 能於交遇

다고 판단된다. 추후에는 소양인 문항인 11-②의 경우에도 事務의 의미를 일처리 능력으로 해석하지 말고 ‘일을 벌인다’는 의미로 해석해보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아이디어가 많다’ 또는 ‘창조력이 있다’ 등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19. Response to the QSCC II No.8721)

번호	Taeumin(%)		Soeumin(%)		Soyangin(%)		Total
87-O	22	28.6	4	5.7	13	24.5	39
87-X	55	71.4	66	94.3	40	75.5	161

Table 20. Response to the New Questionnaire No.11

No.11	Taeumin(%)		Soeumin(%)		Soyangin(%)		Total
11-①	6	5.7	2	4.5	6	12.0	14
11-②	26	24.8	11	25.0	19	38.0	56
11-③	34	32.4	16	36.4	16	32.0	66
11-④	35	33.3	14	31.8	8	16.0	57
No response	4	3.8	1	2.3	1	2.0	6

(3) QSCC II No. 62, 63, 64, 65

- 62. 아는 사람은 많지만 막상 깊게 사귀는 사람이 없어 속상할 때가 많다.
- 63. 밖으로 나돌다 보니 집안에 문제가 많다.
- 64. 새로운 일에 쉽게 적응하기가 어렵다.
- 65. 사람 사귀는 것이 어려워 속상할 때가 많다.

테스트용 설문지 No. 14 (문제점)

14. 당신의 성격에 대하여 고칠 점이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 ① 과격하고 독선적이다.
 - ② 밖으로는 활동적이며 승부욕이 강하나 내실을 기하지 못한다.
 - ③ 실속과 내실을 중요시하다보니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겁난다.
 - ④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하며 남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많다.

QSCC II의 62, 63, 64, 65번 문항은 모두 각 체질의 문제점들을 설문화 한 것이다. 그러나 태양인의 취지에 해당하는 62번 문항은 모든 체질에서 부정적인 대답을 보여 유의성이 없었고, 63번 문항은 소양인의 취지에 해당하는 문항이나 실제

소양인에게 유의성이 있기보다는 소음인이 아니라고 대답한 답에 유의성을 보였으며 64번 문항은 태음인의 응답을 기대한 문항이나 실제는 소음인에게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다. 다만 65번 문항만이 소음인의 취지에 맞으면서도 통계결과 소음인에게서 유의성을 가진 문항이었다. 따라서 각 체질의 문제점을 문헌 및 재가의 연구결과에 따라 수정 신설하여 체질테스트지 14번 문항으로 만들어보았다.

체질테스트지 14-①번 문항은 테스트용 설문지 4-①번 문항²²⁾ 즉 태양인의 태도를 묻는 문항을 태양인의 문제점으로 변경한 문항으로 태양인의 과단성이 있음을 ‘과격하고 독선적이다’라고 표현해보았다.

14-②번 문항은 김²⁵⁾등에 따르면 ‘居處²³⁾’의 의미를 ‘가정을 중하게 여긴다’ 보는 것도 바른 해석이 될 수 있으나 ‘집안에 문제가 많다’라는 문항이 응답자에게 여러 가지 자의적인 해석을 가져와 소양인이 응답하는 비율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다소 완곡한 표현으로 ‘내실을 기하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한편 소양인의 情氣인 ‘恒欲外勝’을 『東醫四象診療醫典』²⁸⁾에서는 ‘고집이 세다’라고 표현한 바 있어 이를 ‘승부욕이 강하다’라고 표현해보았다.

14-③번 문항은 태음인의 문제점에 해당하며 QSCC II의 64번 문항과 비슷하지만 ‘不能敏達於事務²⁴⁾’의 해석에 있어서 ‘事務’의 의미를 ‘일처리를 잘한다’ 내지는 ‘일의 핵심과약을 잘하여 쉽게 해낸다’의 뜻이 아닌 ‘일을 벌려놓는다’ 내지는 ‘새로운 일을 만든다’라는 의미로 재해석 한다면 ‘일을 적용하기가 힘들다’가 아니라 ‘새로운 일을 받아드리기가 힘들다’로 해석할 수 있어 표현을 달리해 보았다.

14-④번 문항은 소음인의 문제점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표현은 권영식의 望診法²⁶⁾을 보면 ‘如

22) 체질테스트지 4-① 거침없고 과단성이 있지만 함부로 하는 경향도 있다.

23) 3-3 少陽之肺 能敏達於事務而 少陽之腎 不能恒定於居處

24) 太陰之腎 能恒定於居處而 太陰之肺 不能敏達於事務

依如重'이라 하여 '기대기를 잘한다'라고 하였으며 『東醫四象要訣』²⁷의 「辨證十條」에 따르면 소음인의 성격에 '세밀하나 박력이 없고 꼼꼼하여 일에 진전이 없다' 하여 이를 '우유부단하다'고 표현하여 소음인의 단점으로 문항을 만들어 보았다.

이후 실시한 카이스퀘어검정 결과 테스트용 설문지 14번 문항의 P값은 0.05이하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이 판명되었다. 단 소음인과 소양인의 경우 情氣에 대한 문항의 응답분포가 비교적 각 체질과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으나 태음인의 경우 최다 응답을 보이긴 했지만 다른 체질이 같은 높은 응답률을 보이지 못해 유의성이 떨어져 보인다. 사상인의 문제점에 대한 문항은 위의 문항에 태음인의 항목을 다소 보완을 하면 4지선다의 문항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21. Response to the QSCCII No.63,64,65²¹

QSCCII	Taeumin(%)	Soeumin(%)	Soyangin(%)	Total
63"O"	6 7.8	0 0	10 18.9	16
"X"	71 92.2	70 100	43 81.1	184
64"O"	20 26.0	32 45.7	6 11.3	58
"X"	57 74.0	38 54.3	47 88.7	142
번호	Taeumin(%)	Soeumin(%)	Soyangin(%)	Total
65"O"	15 19.5	31 44.3	4 7.5	50
"X"	62 80.5	39 55.7	49 92.5	150

* QSCCII No. 62 문항은 세 체질 모두 X 라 응답하여 유의성이 없어 결과를 생략함

Table 22. Response to the New Questionnaire No.14

No.14	Taeumin(%)	Soeumin(%)	Soyangin(%)	Total
14-①	7 6.7	1 2.3	8 16.0	16
14-②	32 30.5	5 11.4	27 54.0	64
14-③	33 31.4	16 26.4	8 16.0	57
14-④	30 28.6	19 43.2	5 10.0	54
No response	3 2.9	3 6.8	2 4.0	8

(4) QSCCII No. 48, 49, 50, 51

- 48. 항상 급하게 서두르는 편이다.
- 49. 일을 벌여만 놓고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여 항상 걱정스럽다
- 50. 처음에 남 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
- 51. 평소에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편이다.

테스트용 설문지 No.15 (恒心, 심리상태)

평소의 심리상태에서 당신은 다음 중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 ① 항상 마음이 급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 ② 이유 없이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가 자주 있다.
- ③ 겁이 많고 매사에 조심조심하여 시간이 오래 걸린다.
- ④ 소심하고 마음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QSCCII의 48번부터 51번까지는 恒心을 묻는 문항이다. 그러나 QSCCII 50번 문항은 태음인의 怯心을 묻는 문항이나 실제로는 소음인에게서 82.9%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48번 문항은 각 체질 모두에게 고루 나와 유의성이 없다고 밝혀진 문항이다. 49번과 51번은 각각 소양인과 소음인에 관한 문항이며 유의성이 있어 원문의 취지와도 부합한 경우이다. 이에 각 사상체질의 심리상태를 한 문항으로 정리해보았다.

테스트용 설문지 15-①번 문항은 태양인에 해당하며 QSCCII의 48번 문항을 변형하였다. 태양인의 恒心은 '急迫之心'이나 단순히 '급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胸實足輕'한 소양인의 급함과 구별하기 힘들므로 '迫'한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라고 표현해보았다.

15-②번 문항은 소양인에 해당한 문항이며 소양인의 '懼心'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겁²⁵⁾'등의 연구에서는 소양인의 '懼心'을 태음인의 '怯心'과 비교하여 '怯心'은 위험을 알고 겁이나 미리 피하는 것이고 '懼心'은 알지 못하는 위험에 두려워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소양인은 '이유없이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느낀다'라고 표현하였고 이에 대하여 태음인은 '怯心'을 실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겁이 많다'로 표현해 비교해보았다.

15-④번 문항은 소음인에 해당한 문항이며 소음인의 '不安定之心'을 표현하고자 한 것인데 QSCCII의 51번 문항처럼 '불안하다'라고 표현해도 통계적 유의성은 있었으나 '불안하다'는 말은 '걱정이 되어 마음이 편하지 아니함'이고 불안정이란 '안정성이 없다'는 뜻이므로 불안정지심이란 '감정의 변동이 심하다'로 해석이 가능하여

‘불안정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동의수세보원』의 취지에 적합하다 하겠다.

테스트용 설문지 15번 문항을 카이스퀘어검정하였을 경우 P값은 0.05이하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문항으로 판명되었으나 응답결과상으로는 소음인 체질에서만 일치하였고 다른 체질에서는 응답결과가 문항에서 의도한 체질과 일치하지 않았다. 박²¹등의 연구결과와 비교해보면 Table 23, 24와 같다.

통계 분석 결과 소양인의 경우 오히려 15-① 즉 태양인의 急迫之心을 묻는 문항에 답을 많이 하였는데, 이는 ‘胸實足輕’한 소양인의 급함과 구별이 제대로 되지 못하였으며 소양인의 懼心을 ‘이유 없는 두려움과 공포’라고 해석함이 부적절하였다고 생각된다. 태음인의 경우에도 소양인과 구별한 심리상태의 표현이 부적절하였다고 생각된다. 위의 결과를 보아 소양인의 懼心과 태음인의 怯心에 대하여 일반인이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의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23. Response to the QSCC II No.49,50,51²¹⁾

QSCC II	Taeumin(%)	Soeumin(%)	Soyangin(%)	Total
49"O"	24 31.2	16 22.9	26 49.1	66
"X"	53 68.8	54 77.1	27 50.9	131
50"O"	47 61.0	58 82.9	15 28.3	120
"X"	30 39.0	12 17.1	38 71.7	80
QSCC II	Taeumin(%)	Soeumin(%)	Soyangin(%)	Total
51"O"	20 26.0	42 60.0	7 13.2	69
"X"	57 74.0	28 40.0	46 86.8	131

Table 24. Response to the New Questionnaire No.15

No.15	Taeumin(%)	Soeumin(%)	Soyangin(%)	Total
15-①	19 18.1	2 4.5	29 58.0	50
15-②	8 7.6	0 0	2 4.0	10
15-③	25 23.8	12 27.3	7 14.0	44
15-④	43 41.0	26 59.1	8 16.0	77
No response	10 9.5	4 9.1	4 8.0	18

3) Class III

Class III는 김²⁰등과 박^{21,23}등의 연구를 통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고 밝혀졌으나 문항 자체는 『동의수세보원』의 취지에 적합한 문항 군이다. 각각의 문항에 있어서 문체점을 지적하고 문항별로

적합성을 갖추게 한 후 이를 토대로 새롭게 문항을 만들어 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QSCC II No. 117, 118,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 No. 9

117. 간혹 눈동자가 아플 때가 있다.
118. 간혹 눈 주위가 뻑뻑할 때가 있다.
9. 당신의 눈빛은 다음 중 어디에 가장 가까운가?
① 눈빛이 반사적이고 예리하다.
② 눈에 정기가 없다.
③ 눈빛이 밝지 않고 침침하다.
④ 눈에서 빛이 난다.

테스트용 설문지 No.8 (눈빛)

8. 당신의 눈매나 눈동자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쪽 입니까?
① 부리부리하며 번뜩인다.
② 날카롭고 예리하며 맑다
③ 눈이 크고 쉽게 충혈이 잘 되거나, 눈이 아주 작고 눈꺼풀이 두텁다
④ 부드럽고 순하며 흐리다.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의 9번은 사상 각 체질의 눈빛에 대한 문항으로 각 체질의 눈빛 또한 체질구별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QSCC II의 117번 및 118번 문항 또한 사상인 변증론의 ‘太陰人 有目眚上引證 又有目睛內疼證也’을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QSCC 117번 문항은 통계결과 모든 체질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고 118번은 각 체질 간에 비슷한 분포를 보여 원문의 취지에는 적합하나 통계적 유의성을 잃어버린 경우이다. 한편 사상변증내용설문지의 눈빛에 대한 문항 또한 박²¹등의 연구에 따르면 ‘태음인의 눈빛이 밝지 않고 침침하다’라는 항목에 대해 태음인이 선택하는 확률이 20.8%로 통계적 유의성을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각 사상인의 눈빛에 대한 고찰을 통해 새롭게 테스트용 설문지 8번 문항으로 표현해보았다.

테스트용 설문지 8-③번 문항은 태음인에 해당한다. 태음인의 눈은 金洲 『性理臨床學』²⁹에서 重而平한 牛眠型이며 또는 부리부리하고 무섭게 보이는 虎狀이라 하였다. 여기서 牛眠은 단순히 큰

눈이라기보다는 눈꺼풀이 두툼하고 눈 부위가 평평한 눈을 말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반면에 고³⁰⁾등의 연구에 따르면 ‘눈의 넓이는 소음인이 가장 넓고 태음인이 가장 적고 더구나 중안의 면적이 가장 크므로 가장 눈이 작게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편 辨證論의 ‘目眥上引證’과 ‘目睛內疼證’은 통증으로 해석해보기보다는 통증의 전 단계인 염증반응으로 보고 이를 ‘충혈이 잘 된다’로 표현해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여 ‘눈이 크고 쉽게 충혈이 잘된다’와 ‘눈이 작고 눈꺼풀이 두텁다’로 표현해보았다.

8-②번은 소양인의 문항이며 이는 사상변증내용설문지의 소양인 문항에 수정을 한 것으로 金洲 『性理臨床學』²⁹⁾에서 소양인의 눈을 ‘輕한 鳥眼’라 하였고 김²⁵⁾등은 이를 매의 눈으로 보고 맑으면서도 예리한 눈이라 하였는데 이에 ‘날카롭고 예리하며 맑다’라고 표현하였다.

8-④번 문항은 소음인에 해당하는 문항이며 역시 金洲 『性理臨床學』²⁹⁾에서 소음인의 눈을 ‘大而整한 鳥眼’즉 닭의 눈으로 보고 이를 울고 난 직후처럼 눈물이 고여 있어 선이 곱고 눈물이 맺힌 듯 탁한 눈이라 하였는데 이에 소음인의 눈을 ‘부드럽고 순하며 흐리다’라고 표현하였다.

8-①번 문항은 태양인에 해당하는 문항이나 태양인의 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여 사상변증내용설문지의 ‘눈에서 빛이 난다’라는 표현을 ‘번뜩인다’와 ‘부리부리하다’로 의미는 같으나 표현을 다르게 해 보았다.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문항으로 판명되었으며 응답결과는 Table 25와 같다. 응답결과를 보면 소음인에게 높은 응답이 나왔으며 소양인의 경우에도 새로운 문항이었으나 많은 응답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수 있었다. 그러나 태음인의 경우 소음인과 태음인의 항목으로 응답이 분산된 것을 볼 수 있어 좀 더 특징적인 면을 중심으로 문항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QSCCII No. 40, 41, 42, 43, 44, 45, 46, 47

- 40.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 41.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심성이 바른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 42. 나는 사람을 볼 때 우선 학력을 본다.
- 43.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영리한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 44.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부지런한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 45.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 46. 나는 사람을 볼 때 우선 재능이 있는지를 본다.
- 47.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테스트용 설문지 No. 12 (性氣III)

12. 당신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사람을 쓴다면 다음 중 어떤 유형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하겠습니까?
- ① 마음이 착한 사람
 - ② 영리하고 민첩한 사람
 - ③ 부지런하고 노력하는 사람
 - ④ 그 일에 재능이 좋은 사람

Table 25. Response to the New Questionnaire No.8

번호	Taeumin(%)	Soeumin(%)	Soyangin(%)	Total
8-①	6 5.7	1 2.3	7 14.0	14
8-②	26 24.8	11 25.0	19 38.0	56
8-③	31 29.5	10 22.7	12 24.0	53
8-④	32 30.5	21 47.7	7 14.0	60
No response	10 9.5	1 2.3	5 10.0	16

* QSCCII No. 117 문항은 세 체질 모두 X라 응답하여 유의성이 없어 결과를 생략함

* QSCCII No. 118 문항은 각 체질간 비슷한 분포를 보여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결과를 생략함
테스트용 설문지 8번 문항은 카이스퀘어검정을

QSCCII의 문항 40, 41, 42, 43, 44, 45, 46, 47 문항은 모두 긍정적이거나 모두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뚜렷한 응답성향을 드러내지 못한 문항들이다. 그러나 각 체질의 性氣를 잘 표현하고 있는 문항이므로 心性的 要素를 판별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동의수세보원』을 재해석하기보다는 여러 개로 분할된 문항을 하나의 문항으로 정리해본 다음, 특수한 상황 즉 고용자의 입장을 연출하여 기존 문항의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상황을 탈피해보려 하였다.

테스트용 설문지 12-①번 항목은 태양인의 性氣를 표현한 것이며 ‘雖至不肖 人之善惡 亦知之也’에서 ‘善惡’을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 표현하였다. 12-②번 항목은 소양인의 性氣를 표현한 것이며 ‘人之知愚 亦知之也’에서 ‘知愚’는 ‘영리하고 민첩한 사람’이라 표현해보았다. 12-③번 항목은 태음인의 性氣이며 ‘人之勤惰 亦知之也’에서 ‘勤惰’를 ‘부지런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라 표현하였고 12-④번 항목은 소음인의 性氣를 표현한 것으로서 ‘人之能否 亦知之也’에서 ‘能否’를 재능이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였다.

테스트용 설문지 12번 문항을 카이스퀘어검정 하였을 때 P값은 0.05이하로 통계적 유의성을 갖기는 하였으나 응답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보면 모두 태음인의 항목에 응답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Table 26). 즉 각 체질 모두 12-③번 문항인 ‘부지런하고 노력하는 사람’에 최고의 응답을 보였는데, 이는 고용자라는 상황의 설정이 각 체질의 性氣를 표현하는데 있어 부적합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고용자보다는 함께 일하는 동료 등으로 상황을 재설정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6. Response to the New Questionnaire No.12

번호	Taumin(%)	Soeumin(%)	Soyangin(%)	Total
12-①	15 14.3	11 25.0	3 6.0	29
12-②	13 12.4	6 13.6	9 18.0	28
12-③	53 50.5	19 43.2	29 58.0	101
12-④	22 21.0	7 15.9	8 16.0	37
No response	2 1.9	1 2.3	1 2.0	4

* QSCC II No. 40, 41, 42, 43, 44, 45, 46, 47문항의 결과는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생략함

QSCC II의 74번부터 77번까지는 사상인의 행동 특성에 대한 문항으로 ‘心慾’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이중 74번, 76번 문항은 각각 태양인과 태음인에 해당하는 문항이나 응답자 대부분이 X로 대답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며 75번과 77번만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心慾’은 행동특성을 알 수 있는 사상인의 주요한 心性的 要素이므로 유의성이 없는 문항을 중심으로 각 문

항을 다시 수정하여 표현해 보기로 하였다.

QSCC II의 74번 문항은 태양인 鄙人에 해당하는 ‘棄禮而放縱者²⁵⁾’를 해석한 것으로 해석상에는 무리가 없어보이나 ‘예의없다’는 표현이 국내 정서상 부정적인 이미지를 유발하므로 완곡하게 표현하여 테스트용 설문지 13-①번 문항에서는 疏通에 능한 태양인의 성질을 살려 ‘남을 의식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였다.

(3) QSCC II No. 74, 75, 76, 77

- 74. 예의 없이 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 75. 아는 척 하거나 과시하는 경우가 많다.
- 76. 있어도 없는 척하여 실속을 차리는 편이다.
- 77. 남의 일에 무관심하고 간섭받기도 싫어한다.

테스트용 설문지 No. 13 (행동특성)

- 13. 당신의 단점이라 생각되는 부분과 가장 가까운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① 남을 의식하지 않고 너무 자기 멋대로만 하는 편이다.
 - ② 지나치게 겉모습에 신경을 많이 쓴다.
 - ③ 매사에 욕심이 지나친 편이다.
 - ④ 지나치게 나약한 편이다.

QSCC II의 75번 문항은 소양인 薄人에 해당하는 ‘棄智而飾私者²⁶⁾’를 해석한 것으로 유의성이 있는 문항이나 테스트용 설문지에서는 ‘飾私者’를 자전적 의미 그대로 ‘자기를 꾸미다’ 발전하여 ‘외모에 신경을 쓴다’로 재해석 해보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QSCC II의 76번 문항은 태음인 貪人에 해당하는 ‘棄仁而極慾者²⁷⁾’을 해석한 것으로 QSCC I 60번 문항에서는 ‘돈이나 물건에 욕심이 많은 편이다’라고 표현되었던 문항이다. 그러나 김¹⁰⁾등의 연구에 따르면 ‘돈이나 물건에 욕심이 많다’고 한 문항은 어느 체질에서도 특별한 유의성을 갖지 못했으며 박²¹⁾등의 연구결과에서도 변경된 QSCC II의 76번은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하였다. 따

25) 2-2 棄禮而放縱者 名曰 鄙人
 26) 2-2 棄智而飾私者 名曰 薄人
 27) 2-2 棄仁而極慾者 名曰 貪人

라서 QSCC I 의 표현을 따르되 태음인의 ‘物欲之心’을 돈이나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매사’로 달리 표현해보았다.

QSCC II의 77번 문항은 소음인 儒人에 해당하는 ‘棄義而偷逸者²⁸⁾’를 해석한 것으로 ‘偷逸’의 해석을 QSCC II의 77번 문항에서는 ‘무관심하거나 간섭받기도 싫어한다’고 표현하였으며 유의성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자전적 의미대로 ‘偷逸’의 해석을 ‘안일하다’ 또는 儒人의 뜻대로 ‘나약하다’로 재해석해본 후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테스트용 설문지 5번 문항은 카이스퀘어검정에 따른 P값은 0.05이하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문항으로 판명되었으며 응답 결과는 Table 27과 같다. 분석결과 태음인의 문항과 소음인의 문항에서는 유의성이 보이며 특히 소음인에게는 유의성이 높았다. 하지만 소양인에게 있어서는 반대로 제일 낮은 응답을 보이면서도 태양인의 항목에 높은 유의성을 보이는데 이는 ‘飾私者’를 ‘지나치게 겉모습에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소양인에 있어서는 옳바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대신 ‘棄智而飾私者’의 해석을 자신의 최대 장점인 ‘智’를 버렸을 때, 즉 자의든 타의든 절박한 상황에서 임기응변에 강해지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소양인의 특성으로 보고 문항을 재구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사상인의 행동특성에 대해 신실한 문항은 유의성이 있어 보이며 소양인의 문항은 변경 없이 그대로 두거나 다른 표현으로 변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Table 27. Response to the New Questionnaire No.13

번호	Taeumin(%)	Soeumin(%)	Soyangin(%)	Total
13-①	20 19.0	4 9.1	22 44.0	46
13-②	18 17.1	4 9.1	3 6.0	25
13-③	32 30.5	8 18.2	15 30.0	55
13-④	25 23.8	25 56.8	6 12.0	56
No response	10 9.5	3 6.8	4 8.0	17

* QSCC II No. 74, 75, 76, 77문항의 결과는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생략함

28) 2-2 棄義而偷逸者 名曰 儒人

(4) QSCC II No. 99, 100

- 99. 풍족한 상태에서도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다.
- 100. 사소한 일에서도 기쁨을 느낄 때가 많다.

테스트용 설문지 No.25 (사물의 인식 과정)

- 25-1.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못마땅한 경우가 많다.
- 25-2. 남의 일에 대해서 ‘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QSCC II의 99번, 100번 문항은 격치고 독행편에 나오는 사상인의 憤嘆之心 好樂之心 에 대한 문항이다. 실제 ‘憤嘆之心’은 ‘鄙者’ 즉 태양인에 해당하며 ‘好樂之心’은 ‘儒者’ 즉 소음인에 해당하는 문항이나 실제로는 99번의 경우 각 체질모두 X 라고 대답하였으며 100번 문항은 각 체질간 응답이 고루 분포되어 유의성이 없는 문항들이다.

그러나 QSCC II의 99번 과 100번 문항이 비록 태양인과 소음인에 해당하는 문항이지만 확충론을 보면 ‘太陽人 哀性遠散而 怒情促急 哀性遠散者 太陽之耳 察於天時而 哀衆人之相欺也 哀性非他 聽也. 怒情促急者 太陽之脾 行於交遇而 怒別人之侮己也 怒情非他 怒也’라 하여 ‘태양인의 귀는 천시를 살필 때 못사람이 서로 속임을 애처롭게 여기며 교우를 맺을 때 남이 자기를 업신여기는 것을 노여워한다’고 하였다. 한편 소양인은 ‘少陽人 怒性宏抱而 哀情促急 怒性宏抱者 少陽之目 察於世會而 怒衆人之相侮也 怒性非他 視也 哀情促急者 少陽之肺 行於事務而 哀別人之欺己也 哀情非他 哀也’이라 하여 ‘소양인의 눈은 세회를 살필 때 못사람들이 서로 업신여김을 노엽게 여기는 것이며 사무를 처리할 때 남이 자기를 속이는 것을 슬퍼한다’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태양인과 소양인에게는 공통적으로 귀와 눈으로 표현되는 사물의 인식 과정이 다소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며 개혁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이는 곧 陽人의 성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태음인의 경우 ‘太陰人 喜性廣張而 樂情促急 喜性廣張者 太陰之鼻 察於人倫而 喜衆人之相助也 喜性非他 嗅也 樂情促急者 太陰之腎 行於居處而 樂別人之保己也 樂情非他 樂也’라 하

여 ‘태음인의 코는 인륜을 살필 때 못사람들이 서로 돕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거처를 다스릴 때 남이 자기를 보호해 줌을 즐거워한다’ 하였고 소음인은 ‘少陰人 樂性深確而 喜情促急 樂性深確者 少陰之口 察於地方而 樂衆人之相保也 樂性 非他味也 喜情促急者 少陰之肝 行於黨與而 喜別人之助己也 喜情 非他 喜也’라 하여 ‘소음인의 입이 지방을 살필 때 못사람이 서로 보호해줌을 즐겁게 여기며 당여에 관여할 때 남이 자기를 돕는 것을 기뻐한다’라 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태음인과 소음인에게는 공통적으로 코와 입을 통한 사물의 인식 과정이 다소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며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이는 곧 陰人의 성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사물의 인식과정은 각 체질별로 크게 4가지로 나누기가 다소 힘들지만 크게 양인과 음인으로 구분했을 때 그 성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설문지를 만들 때 역시 2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보았다. 체질테스트설문지 25-1은 부정적이고 개혁적인 양인의 성향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못마땅하다’라고 표현해보았으며 25-2에서는 낙관적이고 보수적인 음인의 성향을 ‘남의 일에 대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표현해보았다. 카이스퀘어검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문항으로 밝혀졌으며 그 분포도 소양인과 소음인, 태음인으로 비교적 의도한 바대로 잘 구별되어 나타났다. 사물의 인식과정을 묻는 문항은 4가지의 체질로 구별하는 것보다는 음인과 양인의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Table 28).

Table 28. Response to the New Questionnaire No.25

No.25	Taeumin(%)	Soeumin(%)	Soyangin(%)	Total
25-①	41 39.0	14 31.8	30 60.0	85
25-②	61 58.1	27 61.4	17 34.0	105
No response	3 2.9	3 6.8	3 6.0	9

* QSCC II No. 99, 100 문항의 결과는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생략함

4. 태양인 문항에 대한 고찰

기존 체질판별설문지들의 문체점 중에 하나는

태양인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태양인의 수가 작기도 하지만 그만큼 태양인을 판정하는데 유의성이 있는 문항 개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실제 본 연구에서도 태양인의 수가 단 1명에 불과하여 비록 태양인을 평가하는 문항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통계과정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비록 1명의 태양인이라도 태양인에 해당하는 문항에 많은 수를 응답하여 앞으로 태양인의 문항을 연구 개발하는데 있어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래는 본 설문 문항 중에 태양인 1인이 응답하였던 문항 중 태양인에 해당하는 문항을 정리한 것이다(Table 29).

Table 29. Questions of the Taeyangin

4-① 거침없고 과단성이 있지만 함부로 하는 경향도 있다.
5-① 강하고 남성적이다.
6-① 크고 우렁차다
7-①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상대를 설득시키려 한다.
8-① 부리부리하며 변덕이다.
9-①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물러서지 않고 밀어붙인다.
10-① 사소한 것은 신경 쓰지 않으며 과감하다.
11-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처음 만난 사람도 쉽게 설득할 수 있다.
12-① 마음이 착한 사람
13-① 남을 의식하지 않고 너무 자기 멋대로만 하는 편이다.
14-① 과격하고 독선적이다.
15-① 항상 마음이 급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16-① 말솜씨가 좋아 사람들을 감복시키는 경우가 많다.
25-1.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못마땅한 경우가 많다.
26-1. 생각보다 말이나 행동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많다.
45. 업신여김을 당하면 화가 나서 주체할 수가 없다.
46. 남을 의식하지 않고 활달하게 행동한다.
47. 내 뜻을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고 따라주지 못해 답답할 때가 많다.
48. 결단을 내릴 때에는 주저함이 없다.

4번 문항부터 26번 문항까지는 앞서 문항 분석에서 미리 밝힌바 있다. 45번 문항은 기존의

QSCCⅡ의 68번 문항인 ‘업신여감을 당하면 화가 나서 주체할 수가 없다’와 동일한 문항으로 이는 확충론에서 ‘怒情促急者 太陽之脾 行於交遇而 怒 別人之侮己也 怒情 非他 怒也’이라 한 부분을 해석하여 이를 문항으로 만든 것이다. 46번 문항은 擴充論의 QSCCⅡ의 78번 문항인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편이다’를 수정 변경한 문항으로 ‘太陽之脾 能勇統於交遇而 太陽之肝 不能雅立於黨與’에서 ‘勇統於交遇’를 활달하게 행동한다고 하였고 ‘남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앞서 테스트용 설문지 13번에서 밝혔듯 태양인의 ‘放縱之心’을 표현한 것으로 이를 한 문항으로 만들어 ‘남을 의식하지 않고 활달하게 행동한다’라 하였다. 47번 문항은 ‘太陽之性氣 恒欲進而 不欲退’에서 볼 수 있듯 태양인의 독단적인 면에서 유추하여 독단적인 태양인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함으로 답답하다고 표현하여 이를 문항으로 만들어 본 것이다. 48번 문항은 ‘其體形腦佳眞之起勢 強旺 性質 疏通 又有果斷’에서 태양인의 과단성을 ‘결단을 내릴 때 주저함이 없다’로 표현을 바꾸어 문항으로 만든 것이다.

IV. 總括 및 提言

1) 총 4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테스트용 설문지 중 주요 문항 15개를 분석 고찰해 본 결과 1개 문항이 설문지상의 응답과 3개의 체질(태음, 소양, 소음인) 과 모두 일치하였고 9개 문항에서 2개의 체질과 일치하였으며 4개의 문항에서 1개의 체질과 일치하였다. 1개의 문항에서는 어느 체질과도 설문지 응답이 일치하는 것이 없어 유의성이 없었다(Table 30).

Class

- I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고 『동의수세보원』의 취지와도 부합하지만 부분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한 문항
- II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으나 실제 체질과 일치하지 않은 문항
- III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으나 『동의수세보원』의 취지에는 부합하는 문항

Table 30. The correspondence of response with real constitution

번호	Class	3체질에서 일치	2체질에서 일치	1체질에서 일치	0체질에서 일치
4	I			√	
5	I		√		
6	I		√		
7	II			√	
8	III		√		
9	I		√		
10	I			√	
11	II				√
12	III			√	
13	III		√		
14	II	√			
15	II		√		
16	II		√		
25	III		√		
26	I		√		

2) Class I에서는 총 6개 문항 중 3개 문항이 1체질에서만 설문지 응답과 실제 체질이 일치하였다. 이는 이미 기존의 논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밝혀지고 『동의수세보원』의 취지와도 부합한 문항의 경우 문항의 해석 및 적합성의 연구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3) Class II에서는 총 5개의 문항 중 1개의 문항이 3개체질에서 모두 일치하였고 2개 문항이 2체질에서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있으나 실제 체질과 문항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한 문항별 해석 및 적합성의 연구가 사상체질변별력향상에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4) Class III에서는 총 4개의 문항 중 2개의 문항이 설문지 응답과 실제 체질이 일치하였다. Class III의 문항들은 기존의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가치가 낮게 평가된 문항들이므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문항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5) 설문지 문항의 분석 결과 소음인과 소양인 체질의 구분은 비교적 뚜렷하였으나 태음인의 경우는 다른 체질과 다르게 문항별 편향성이 들어나지 않았다. 『동의수세보원』 중 태음인의 원문에 대한 재해석이나 설문문항에서 표현의 방법을

재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6) 설문지 문항의 분석 결과 소양인이 태양인의 문항에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 많은 시도는 하였으나 태양인과 소양인의 미묘한 性情의 차이를 설문상으로 나누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설문지 이외의 방법의 연구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연구 분석이 요구된다.

7) 기존의 설문지 문항에서 단답형의 문항들을 4지선다 문항으로 통합 신설해 본 결과 각각의 체질간의 차이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차이를 이끌어 낼 수 있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동의수세보원』 원문에 4가지 체질이 모두 밝혀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후세 의가들의 연구나 기타 논문들을 통해 새롭게 문항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8) 본 연구에서 태양인에 해당하는 항목은 총 19개 문항이며 이중 18개 문항이 기존의 논문에서 수정하였거나 일부는 신설한 문항이었다. 태양인의 희귀성으로 인하여 비록 태양인 문항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힘들었으나, 1명의 태양인이 태양인의 문항에 많은 응답을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태양인 性情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문항의 개발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1. 김종원 외 2인. 사상체질과 혈중 ProstaglandinE2치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8;9(2): 245-62.
2. 조황성 외 1인. 체질진단의 객관화에 관한 연구-생화학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사상체질의학회지. 1997;9(2) :147-62.
3. 조동욱 외 2인. 유전자지문법을 이용한 사상체질의 유전적 분석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6;8(2): 151-64.
4. 조동욱 외 2인. Amp-FLP를 이용한 사상체질의 유전적 분석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7; 9(2):163-74.
5. 최승훈 외 2인. 사상체질유형과 ACE(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유전자 Type(polymorpin)과의 상관관계. 사상체질의학회지. 1998;10(2): 283-290.
6. 김종원 외 2인. EAV의 측정치와 사상체질유형 및 중풍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5;7(2) :59-88.
7. 지규용 외 2인. 적외선체열촬영진단기를 이용한 체질분류와 병리진단에 관한 임상적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1995;14(2)
8. 고병희 외 1인. 사상체질변증에 관한 소고, 대한한의학회지. 1985;6(1)
9. 고병희 외 1인. 사상체질변증방법론 연구(제2보), 대한한의학회지. 1987;8 (1)
10. 김선호 외 2인.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의 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3;5(1):61-80.
11. 김선호 외 2인. 사상체질분류검사(QSCCII)의 표준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6;8(1):186-246.
12. 이정찬 외 3인. 사상체질분류검사의 준거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3;5(1):81-98.
13. 이정찬 외 2인. 사상체질분류검사(QSCCII)의 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6;9(1): 247-94.
14. 이의주 외 2인.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I)의 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5;7(2): 889-100.
15. 김상복 외 4인. 사상체질분류검사지II에 의한 소음인 진단의 타당성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1)
16. 나대운. 사상체질분류검사지II에 의한 소양인 진단의 타당성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2001
17. 장현록. 사상체질분류검사지II에 의한 태음인 진단의 타당성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2001
18. 김태균 외 1인. 새로운 사상체질 설문지의 임상적 활용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1): 173-185.
19. 김상복 외 5인. 개정된 사상체질분류검사지II에 대한 임상적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3): 15-21.
20. 김태연 외 4인. 사상체질분류검사지의 Upgrade 연구(I).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1): 27-37.

21. 박은경 외 1인. QSCCII 설문지 문항에서의 체질별 응답 차이 비교분석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2):134-167.
22. 박은경 외 2인. 의사결정나무법을 이용한 체질진단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144-155.
23. 박은경 외 1인. 설문지 문항에서의 체질별 응답차이 비교분석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1):157-171
24. 신미란 외 1인. CSL을 통한 음향특성과 사상체질간의 상관성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1(1):137-157
25. 김종열 외 2인. 체질판별표를 이용한 체질판별의 객관화 방안. 사상체질의학회지. 1998;10(1):181-213.
26. 전국 한의과 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사상의학. 서울: 집문당. p.72. p.133-134 1997
27. 박인상. 東醫四象要訣. 서울: 소나무. 1992: p.44-47.
28. 이태호. 東醫四象診療醫典. 서울: 행림출판. 1990
29. 김주. 性理臨床學. 대성문화사. 서울: 1997:p.40-44.
30. 고병희 외 8인. 사상체질별 두면부의 형태학적 특징. 사상체질의학회지. 1996;8(1):101-186.

(별첨 1)

우석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사상 체질 테스트용 설문지

A. 아래의 예문 중에서 해당하는 항목의 번호를 답안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번호는 반드시 답안지에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 중 당신의 체형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위아래의 균형을 생각하고 답해 주십시오)

- ① 목덜미 부위가 잘 발달하고 허리부위가 빈약하다
- ② 가슴부위가 잘 발달하고 엉덩이 부위가 빈약하다
- ③ 허리 부위가 잘 발달하고 목덜미 부위가 빈약하다
- ④ 엉덩이 부위가 잘 발달하고 가슴부위가 빈약하다.

2. 당신의 가슴과 어깨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어깨가 벌어지고 목덜미가 굳세다.
- ② 가슴이 넓고 어깨가 단단하다.(근육형)
- ③ 가슴이 두텁고 잘 발달되어 있다.(비만형)
- ④ 가슴이 빈약하고 등이 구부정하다.(세장형)

3. 당신의 걸음걸이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꼳꼳하게 걷는다.
- ② 몸을 흔들며 빨리 걷는다.
- ③ 느리고 무게 있게 걷는다.
- ④ 자연스럽게 얌전하게 걷는다.

4. 당신의 태도는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거침없고 과단성이 있지만 함부로 하는 경향도 있다.
- ② 민첩하고 용감하지만 경솔한 경향도 있다.
- ③ 의젓하고 무게 있지만 무뚝뚝한 경향도 있다.
- ④ 온순하고 꾸밈이 없지만 게으른 경향도 있다.

5. 당신의 容貌에서 풍기는 인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강하고 남성적이다.
- ② 날카롭고 예리하다
- ③ 두텁고 선이 굵다.
- ④ 부드럽고 여성적이다.

6. 당신의 목소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크고 우렁차다
- ② 맑고 낭랑하다 밝다 카랑카랑하다
- ③ 탁하지만 굵고 힘이 있다.
- ④ 작고 힘이 없다. 부드럽다. 차분하다.

7. 대화할 때 당신의 태도는 다음 중 어느 쪽입니까?

- ①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상대를 설득시키려 한다.
- ② 말을 많이 하며 빨리하지만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
- ③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장황해지는 경우도 있다.
- ④ 말 수가 적고 주로 남의 말을 듣는 편이며, 필요한 말만 간결하게 한다.

8. 당신의 눈매나 눈동자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쪽입니까?

- ① 부리부리하며 번뜩인다.
- ② 날카롭고 예리하며 맑다
- ③ 눈이 크고 쉽게 충혈이 잘 되거나, 눈이 아주 작고 눈꺼풀이 두텁다
- ④ 부드럽고 순하며 흐리다.

9. 일처리에 있어서 당신은 다음 중 어느 쪽입니까?

- ①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물러서지 않고 밀어붙인다.
- ② 이것저것 일을 만들기는 잘 하지만 마물 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
- ③ 매사에 신중하게 생각한 뒤에 결정하며 다른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다.
- ④ 혼자 하는 것이 편하고 남에게 잘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10. 당신의 기질(스타일)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 ① 사소한 것은 신경 쓰지 않으며 과감하다.
- ② 대가 세며 어지간해선 기죽지 않는다.
- ③ 마음먹은 일은 이를 때까지 집요하게 한다.
- ④ 안전하고 단정하며 침착하다.

11. 당신은 다음의 어느 쪽에 재능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처음 만난 사람도 쉽게 설득할 수 있다.
- ② 일의 핵심을 쉽게 파악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 ③ 매사에 안정적이고 중심을 잘 잡아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 ④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남을 잘 달랠 수 있다.

12. 당신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사람을 쓴다면 다음 중 어떤 유형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하겠습니까?

- ① 마음이 착한 사람
- ② 영리하고 민첩한 사람
- ③ 부지런하고 노력하는 사람
- ④ 그 일에 재능이 좋은 사람

13. 당신의 단점이라 생각되는 부분과 가장 가까운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① 남을 의식하지 않고 너무 자기 멋대로만 하는 편이다.
- ② 지나치게 겉모습에 신경을 많이 쓴다.
- ③ 매사에 욕심이 지나친 편이다.

④ 지나치게 나약한 편이다.

14. 당신의 성격에 대하여 고칠 점이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 ① 과격하고 독선적이다.
- ② 밖으로는 활동적이며 승부욕이 강하나 내실을 기하지 못한다.
- ③ 실속과 내실을 중요시하다보니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겁난다.
- ④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하며 남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많다.

15. 평소의 심리상태에서 당신은 다음 중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 ① 항상 마음이 급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 ② 이유 없이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가 자주 있다.
- ③ 겁이 많고 매사에 조심조심하여 시간이 오래 걸린다.
- ④ 소심하고 마음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16. 대인관계에서 당신은 다음 중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 ① 말솜씨가 좋아 사람들을 감복시키는 경우가 많다.
- ② 매사에 절도가 있고 분명하며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대충 넘기지 않는다.
- ③ 엄숙하고 무게 있게 행동하므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 ④ 성질이 모나지 않고 유순하며 타인의 일에 간섭하기를 싫어한다.

B. 아래의 설문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은 다음, 자신과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문항에 모두 V표하여 주십시오.

(V 표시는 반드시 답안지에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 체격이 큰 편이다.

17-2. 체격이 작은 편이다.

17-3. 보통 체격이다.

18-1. 뚱뚱한 편이다.

18-2. 마른 편이다.

18-3. 마르지도 뚱뚱하지도 않은 편이다.

19-1. 체형의 상하 균형에서 상체가 약하다.

19-2. 체형의 상하 균형에서 하체가 약하다.

19-3. 상하가 균형이 잡혀 있다.

20-1. 뼈마디가 굵다.

20-2. 뼈마디가 가늘다.

20-3. 골격이 보통이다.

21-1. 피부가 연약하고 부드럽다.

21-2. 피부가 단단하고 매끄럽다.

- 21-3. 피부가 두텁고 거칠거나 피지가 많다.
- 22-1. 평소 손발이 찬 편이다.
22-2. 평소 손발이 따뜻한 편이다.
- 23-1. 땀을 내면 항상 상쾌하다.
23-2. 조금만 땀을 내도 피곤하다.
- 24-1. 매사에 좀처럼 쉽게 만족하지 못한다.
24-2. 어지간하면 만족하며 넘어간다.
- 25-1.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못마땅한 경우가 많다.
25-2. 남의 일에 대해서 '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 26-1. 생각보다 말이나 행동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많다.
26-2. 생각하는 습관 때문에 말(행동)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27. 남의 일에도 자기 일처럼 잘 나서는 편이다.
28. 꼼꼼한 스타일이라 일이 더딜 때가 많다.
29. 진득하게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한다.
30.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게 편하다.
31. 불임성이 좋아서 사람을 쉽게 잘 사귄다.
32. 옳다고 생각하면 손해 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33. 사람을 사귈 때 이것저것 따져서 쉽게 사귀지 못하는 편이다.
34. 모임이 있을 때 핑계를 대고 빠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35. 남에게 자기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36. 분위기를 주도하는 편이지만 때로는 너무 튀다는 말도 듣는다.
37. 다른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이 부담스럽다.
38. 참을성이 없는 편이다.
39. 일단 시작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끝장을 보려 한다.
40.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은 편이다.
41. 명예에 대한 욕심이 많은 편이다.
42.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43. 밖으로 나돌다 보니 집안에 대하여 소홀히 한다.
44. 길모습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45. 업신여김을 당하면 화가 나서 주체할 수가 없다.
46. 남을 의식하지 않고 활달하게 행동한다.
47. 내 뜻을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고 따라주지 못해 답답할 때가 많다.
48. 결단을 내릴 때에는 주저함이 없다.